

# 초토화작전의 戰史的 意味

柳 太 夏

(군사편찬연구소 조사담당장교)

1. 머 리 말
2. 초토화작전의 배경과 의미
3. 세계전사에서 초토화작전을 실시한 사례
4. 한국전사에서의 초토화작전 사례
5. 제주4·3사건과 군의 작전
6. 맺 음 말

## 1. 머 리 말

‘폐허로 변하였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학적 표현 중의 하나는 ‘초토화 되었다’라는 표현이며, 또한 ‘적을 완전히 패배시켰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 중의 하나로 ‘적을 초토화 하였다’라는 표현이다. 문학작품 속에서 초토화란 용어는 폐허가 된 정도나 피해를 입거나 입힌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제법에서는 비전투원인 민간인 살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쟁행위 하에서 초토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그 속에는 무고한 민간인까지도 집단살상하는 등 비인도적인 전쟁범죄 행위를 범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이 용어를 차용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운동경기에서 큰 점수 차이로 승리하였을 때, 상대방을 초토화시켰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제는 문학적 표현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용어가 일부 학술지에서조차 심사숙고함이 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 사건 자체의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특히 제주4·3사건에 관련하여 정부측의 토벌군이 민간인에 대하여 초토화작전을 실시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많아 이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sup>1)</sup> 따라서 학문적 저술이나 논문 등을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학문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자의 양식에 알맞게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취사선택해야 하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초토화작전이란 용어를 해석해보고, 발생하게 된 역사적 과정과, 전쟁역사 속에서 초토화작전이 실시된 사례와, 초토화작전이라고 왜곡 인용된 사례를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양조훈, 「제주4·3의 역사적 조명」, 『濟州道研究 第15집(1998)』, 63, 66, 74, 76, 80, 83 쪽에서 초토화, 또는 초토화작전이란 용어가 발견된다.

여기에 83쪽의 글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넷째, 미군정 아래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초토화작전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양민희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미국은 비밀문서를 공개하는 등 진상규명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2. 초토화작전의 배경과 의미

초토화작전(Scorched Earth Strategy; 焦土化作戰)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초토화작전과 관련하여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초토 작전【焦土作戰】(명)[군] 초토 전술로 행하는 작전

초토 전술【焦土戰術】(명)[군] 패주(敗走)할 때, 적군(敵軍)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시설·자재(資材) 따위를 스스로 불사르거나 파괴하는 전술

초토화【焦土化】(명) 초토가 됨. 또, 초토로 만들. 1) 적 진영을 초토화하다.

초토화 작전【焦土化作戰】(명)[군] 초토 작전<sup>2)</sup>

이와 같이 초토화와 관련된 설명들이 너무도 간단하다.

한편, 백과사전에서 초토화작전(Scorched Earth Strategy; 焦土化作戰)에 대하여 해설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토작전(焦土作戰; Scorched Earth Strategy)

특정지역을 철저히 불태워 버리는 군사작전. 초토전술(Scorched Earth Tactics)이라고도 한다. 공격·방어, 어느 경우에나 실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방어부대가 패전하여 철수하거나 후퇴할 때, 적의 공격력을 저지·지연시키기 위하여, 또는 적부대로 하여금 그 지역의 시설과 자원 등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작전이다.

나폴레옹전쟁에서의 러시아군,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소련군, 항일전쟁

2) 이희승 편저, 「국어 대사전」(1988, 민중서림), 3649쪽.

(抗日戰爭)에서 공옥청야작전(空屋淸野作戰)을 벌인 중국군 등이 이 작전을 대규모로 실시한 바 있다.<sup>3)</sup>

이와 같이 초토화란 용어는 백과사전 정도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백과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방어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을 뿐, 공격적인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공격적인 의미에서 ‘초토화’란 전쟁이 지나간 뒤의 폐허를 뜻한다. 적의 병력을 거의 섬멸시켰고, 성곽과 주민의 거주지도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또한 농토와 목초지도 태워버리고, 모든 인원, 재물과 곡식을 약탈한 상태를 말한다.

초토화와 관련된 용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초토화와 관련된 영어 용어인 ‘Scorched Earth Strategy’는 ‘초토화전략’이라고 번역되어야 하나, 전쟁사와 관련된 서적에서 통상적으로 초토화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순히 작전적인 면을 고려하여 초토화전술(Scorched Earth Tactics), 왕이나 국가 차원에서 결정하여 실시하는 경우 초토화정책(Scorched Earth Policy)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으나, 초토화작전 하나로 총칭,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없다.

현재 ‘초토화’란 용어는 파괴, 무력화, 섬멸, 승리, 점령 등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의미적으로 비참함, 비장함을 높이기 위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살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뜻으로 대신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초토화와 관련된 전술·작전적 기원을 살펴보면, 이것과 유사한 전술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조(趙)나라의 명장 이목(李牧)이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진(秦)나라에 대항해 사용하여 효과를 거둔 ‘견벽청야(堅壁淸野)’란 것을 들 수 있다. 이 전술은 적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을 요란하여 적군을

3) 斗山東亞 百科事典研究所,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24권」(1996, 주식회사 두산동아), 562쪽.

피로케 하고, 들판과 성을 폐허로 만들어 적군이 주둔하기 곤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방어적인 전술로써 모택동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한국의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sup>4)</sup>

한편 공격적인 초토화전술은 몽골군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전투시 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몽골군의 전략·전술에 의하면 몽골군은 병법서에 나오는 이론을 초월하는 두가지의 우수함이 있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5)</sup>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약탈이다. 몽골군에 있어서는 약탈이란 신성한 사업으로 간주되어, 이 때문에 상대국으로 진입한 이후 그들이 이르는 곳에 있는 인원과 재물, 가축, 곡식을 모두 싣고 가버리며, 가옥과 축사, 성곽은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가을의 경우 목초지도 불태워버려 가축의 먹이를 없애 버림으로써 상대국가로 하여금 기근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국의 국력을 약화시켰으며, 살육을 통하여 저항력을 감소시켜 통치의 기반을 간단하게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1996년도 봄에 몽골의 초원지역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한반도 면적에 해당하는 약 8만km<sup>2</sup>의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수많은 가축이 연기에 질식사하거나 먹이가 부족하여 고통받았던 사실에서, 목초지를 불태운다는 역사적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농사를 짓지 않고 가축으로부터 모든 음식을 조달하는 몽골에서는 초원에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식생활에 지장을 주는 큰 자연재해가 되는 사실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는 방식을 쉽게 사용하였을 것이다.

4) 이형석, 『東洋興亡史(上)』(寶晉齋, 1991), 73쪽.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同王 3년에 秦이 赤麗와 宜安을 침으로 李牧이 나가 肥 땅에서 싸워 이를 물리치고 武安君으로 책봉되었다. 4년에 秦이 番畔를 침으로 李牧이 또 물리쳤다.

전백찬 編, 『中國全史 上』(학민사, 1990), 93쪽.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B.C. 230년 진이 한을 멸하고 한지(韓地)를 영천군(潁川郡)으로 하였다. B.C. 228년 만란읍모를 이용하여 조의 장군 이목을 피살되게 하고, 다음해 한단을 공격하여 조왕 천(遷)을 사로잡고...(생략).

5) 국방군사연구소, 김순규 編譯, 『몽골軍의 戰略·戰術』(1997), 68~71쪽.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약화와 소탕의 작전이다. 이는 전쟁잠재력이 훨씬 우세한 적에 대하여 약탈성의 약화전과 소모성의 소탕전을 수행하여, 자신의 전투력을 보존하면서 상대의 전투력을 약화시켜 정치·외교적인 승리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몽골군이 지나가는 곳은 약탈과 살육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파괴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짐으로써 그야말로 폐허로 변한다는 뜻에서 초토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몽골군이 침략한 후에는 폐허가 된다는 것에서 실질적인 초토화라는 용어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사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초토화작전이 실시된 것을 분석해 보면 성곽과 가옥을 소각하고 파괴하는 것보다는, 적측의 인원과 군마(軍馬)가 군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확한 농작물은 약탈하고 농경지와 목초지(牧草地)를 소각함으로써 적의 전쟁지속능력을 제거하고자 했을 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작물과 목초지를 제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공격하는 쪽에서 이러한 초토화 작전을 사용하였을 때는 농작물, 가축뿐만 아니라 인원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게 섬멸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초토화작전이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토화작전이란 적 측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전쟁자원을 전투 행동 이전이나 또는 이후에 모두 약탈 또는 제거함으로써 적의 전쟁지속능력을 말살하고 전쟁의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군사행동이다. 즉 모든 것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전쟁자원이란 인원, 가축, 농작물과 농경지, 목초지, 모든 공장시설, 공공기관과 주거시설, 통신과 교통시설, 수리시설 등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전에 있어 초토화작전이란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과 조금이라도 유사하게 비교될 수 있는 군사용어를 살펴보면 적

시설이나 장비를 파괴(destroy), 또는 무력화(neutralization)하거나, 적병력을 사살(kill), 무력화(neutralization), 제압(suppretion)하는 것 등이다. 또한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 소탕작전(mopping-up operation, sweeping operation)과 같이 잔적을 소탕하여 적의 저항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의미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요즈음 경향이며, 언론매체에서도 자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초토화작전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 3. 세계전사(世界戰史)에서 초토화작전을 실시한 사례

세계전사 속에서 초토화작전(scorched earth policy)이란 명칭으로 실시된 전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초토화작전이란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서양전사(西洋戰史)속에서 나타나는 십자군의 예루살렘 공격(1192년)을 들 수 있다.<sup>6)</sup>

6) R. E. Dupuy & T. N. Dupuy, 『THE ENCYCLOPEDIA OF MILITARY HISTORY from 3500 B.C. to the present』(Harper & Row, Publishers. 1976), p 319.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192. Advance on Jerusalem. While the Crusader army wintered at Ascalon, Conrad was murdered by one of the Assassins. Soon after this Richard advanced on Jerusalem. Saladin retired before him, carrying out a "scorched earth" policy, destroying all crops and grazing land and poisoning all wells. The lack of water, absence of fodder for the horses, and growing dissension within his multinational army forced Richard to the reluctant conclusion that he could not

1192년 십자군이 아스칼론(Ascalon)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십자군 연맹의 독일왕인 콘라드(Conrad)왕이 이슬람교 광신자 암살집단에 의해서 암살 당했다. 곧 리처드(Richard)왕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였고, 이슬람 연맹측의 살라딘(Saladin)왕은 후퇴하면서 초토화작전(scorched earth policy)을 실시하였다. 모든 농작물과 가축의 방목지를 불태우고, 우물에는 독을 넣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방어하는 측, 즉 이슬람 연맹측에 의한 초토화작전으로 십자군 연맹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지만 식량과 식수공급의 한계로 인하여 곧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역사사전에서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몽골군의 제5차 對金戰鬪로 1229년 몽골군이 금을 침공시 이에 대항하여 금나라 신하들은 방어계획을 논의하여 견벽청야(堅壁清野)전술을 사용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금나라 왕은 견벽청야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점을 들어 채택하지 않았다.<sup>7)</sup>

즉, 방어하는 측에 의하여 계획은 되었지만, 초토화작전이 백성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고, 스스로 입는 피해가 막심함을 잘 알고 있는 금왕(金王)은 이를 실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1240년 12월 몽골군은 제2차 서정작전(西征作戰)을 단행하였다. 몽골군은 러시아의 키예프(Kiev)를 지배하고 있던 군주에게 항복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이 성을 함락한 후, 모든 재화를 약탈하고 성곽은 철저히 파괴하여 평지처럼 변하게 하였다.<sup>8)</sup> 몽골군은 북러시아로 전진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어 상대방 군주에게 투항할 것을 최대한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항복을 거부하거나 사신을 죽인 국가와 성은 반드시 함락하고, 기술자와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청춘남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여버렸다.

besiege Jerusalem without risking almost certain destruction of his army. Reluctantly he withdraw to the coast. There were numerous minor engagements during distinguishing himself as a heroic knight as well as a tactical leader.

7) 김순규 편역, 앞의 책, 74쪽.

8) 김순규 편역, 앞의 책, 100쪽.



이러한 섬멸에 의하여 상대방의 전쟁잠재력을 완전히 말살하였으며, 이러한 소문에 따라 상대방이 미리 항복하도록 하여 전쟁을 통하지 않고 정치적인 승리를 달성하고자 하였다.<sup>9)</sup>

이때에 실시한 작전을 그야말로 용어와 부합되는 공격하는 측에 의하여 실시된 초토화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토만 제국(Ottoman Empire)의 황제 셀림(Selim)은 1513년 페르시아(Persia)가 오토만 제국의 왕위쟁탈전에 자신의 다른 형제를 지원하여 제국의 영토를 침공한 것에 대하여 복수하고자 1515년 전쟁을 선포하고 페르시아를 공격하였다. 오토만 제국의 군대는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인 시바스(Sivas)에서 출발하여 6만명 이상의 병력을 직접 지휘하여 유프라테스강(Euphrates) 상류지역으로 행군하여 갔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토화작전(scorched earth policy)에도 불구하고, 셀림은 후방 병참지원 분야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그의 군대로 하여금 험악한 산악지대를 통과하여 코이(Khoi)지역으로 진출하게 하였다.<sup>10)</sup>

방어하는 측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초토화작전으로 오토만 제국군의 군대는 험악한 행군로를 이용하여야 하였으며, 코이 지역으로 진출한 이후에도 맹방의 군수지원이 도착하기를 상당기간 기다려야만 하였다.

북방전쟁은 1700년~1721년 사이에 발트海 지역에 있어 스웨덴의 패권에

9) 김순규 편역, 앞의 책, 111쪽.

10) R. E. Dupuy & T. N. Dupuy, 앞의 책, pp. 493-494.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515. June-August. Invasion of Persia. Selim marched from Sivas, then the eastern-most Ottoman city, with an army of more than 60,000 men, via Erzerum to the upper Euphrates. Despite the Persian "scorched earth" policy, Selim's logistical foresight permitted him to advance through the rugged mountains to Khoi, where the shah(이란 국왕) had assembled an army, probably less than 50,000 men, entirely cavalry - typical horse archers and lancers of Southwest Asia, based generally on the old Mongol system. Turkish food supplies were consumed on the march.

러시아, 덴마크-노르웨이, 작센-폴란드 등이 도전함으로써 야기된 군사적 대결로 전쟁사에 잘 나타나지 않는 전쟁사이다.

1707년 스웨덴군은 작센으로부터 러시아로 침공을 개시하여, 1708년 7월에는 모길료프에 도착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초토화전술과 게릴라전으로 괴로움을 당한 카를 12세는 모스크바 진격을 단념하고 우크라이나로 향하여 러시아에 반역한 코사크와 합류했다. 1709년 7월 폴타바싸움에서 스웨덴·코사크연합군은 패하여 카를 12세는 투르크로 망명했다. 이 전투에서 등장한 전술로는 초토화전술과 게릴라전이 동시 수행된 것으로, 마치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공시 이에 대항한 러시아 측의 전술이나,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에 의한 모스크바 침공시 이에 대항한 소련군 측의 전술과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나폴레옹 1세의 러시아 원정은 1812년 6월에 실시되었다. 당시 유럽의 상황을 살펴보면, 나폴레옹의 대륙정책은 러시아와의 동맹이 필요하였으나, 특히 오스트리아 황녀와의 결혼은 러시아를 자극하여 러시아로 하여금 반(反)프랑스적 태도로 변하게 하였다. 1811년부터 러시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1812년 5월 대륙봉쇄(大陸封鎖)를 어기고 영국과 통상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원정이 시작되었다.

프랑스군(軍)을 중심으로 70만 대군을 편성하여, 폴란드를 거쳐 모스크바 강가 보로지노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사령관 쿠틀조프가 지휘하는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9월 2일 모스크바로 진입하였다. 며칠 뒤 러시아군은 회피전술로 프랑스군과의 전투를 회피하면서, 한편 초토화작전을 펴면서 후퇴하였다. 프랑스군이 모스크바를 점령하였으나, 시가지는 불타버려 보급품 획득이 불가능하였다. 나폴레옹 자신도 불에 휩싸일 뻔하였다. 이어서 유격부대의 과장적인 공격이 계속되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0월 19일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후퇴 길에 올랐으나, 끈질긴 러시아군의 추격과 추위로 참담한 패배를 당하였다. 10만여 명이 포로가 된 원정의 실패는 이듬해 10월 라이프치히 戰役에서의 패배와 더불어 나폴레옹 몰락의 결정적인 요

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방어작전은 광대한 국토를 가진 국가가 방어작전을 실시할 때, 초토화작전과 게릴라전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은 평소 기치를 내건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The Great East Asia Co-Prosperty Sphere)이란 망상을 이루기 위하여 만주를 병합한 후,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하였으며 12월에는 난징(南京)을 점령하였다. 장개석 정부는 1938년 6월 정저우(鄭州)로 진격한 일본군에 대하여 황하(黃河)제방을 파괴하는 등 저항하였지만, 일본군은 공격을 강화하고 홍콩 북쪽 20마일 부근에 4만여 명의 병력을 추가로 상륙시켜 광둥(廣東)을 점령하였다. 이에 장개석 정부는 주요보급로가 차단된 한커우(漢口, 武漢 부근)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어 산업시설들을 내륙으로 이전하는 등 초토화작전(焦土化作戰)을 전개하면서 수도를 충칭(重慶)으로 이전하였다.<sup>11)</sup>

일본은 1938년 말까지 주요한 지역들을 장악하였지만 중국인들은 굳게 저항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원조도 증가되었다. 2년만에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였던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중일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39년 8월에 독일과 소련은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고 향후 10년간 지키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1941년 6월 독일은 돌연 소련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독일의 히틀러는 영국과의 전쟁을 잠시 놓아두고 소련 침공계획을 ‘바바루사 작전(붉은 작전)’이라는 암호로 1940년 여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이유를 보면 평소 히틀러는 소련 우크라이나 지방의 풍요한 곡창과 코카서스 지방의 석유, 시베리아 지방의 삼림자원 등에 욕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장차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해군과 공군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육군의 비용적인 감축이 필수적인

11) 정하명 외 5인, 『세계전쟁사』(일신사, 1976), 441~443쪽.

것이였기 때문이였다. 당시 소련군의 팽창속도로 보아 동부전선에서의 육군 규모를 쉽게 감축할 수도 없어 양면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련 침공을 결심하게 되었다.

당시 공산주의국가체제 구축과정 중에 내부의 혼란이 있던 소련은 불의의 전쟁을 맞게 되자 준비가 잘 된 독일군의 기세에 밀려 후퇴만 거듭하고 있었다. 1941년 7월 1일 당시 스탈린이 국민에게 행한 연설문에 보면,

“붉은 군대가 불가피하게 퇴각하는 경우, 모든 철도 차량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적에게 단 한 대의 기관차도, 단 한 대의 화차도, 단 한 파운드의 곡식도, 일 갤런의 연료도 남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집단 농장의 농부들은 가축 떼를 모두 내몰고, 곡식은 국가 당국에 양도하여 후방까지 안전하게 수송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철수시킬 수 없는 비철금속, 곡식, 연료 등 모든 귀중한 재산은 어김없이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sup>12)</sup>

라고 언급하고 있어, 스탈린은 독일의 침공에 대해 초토화작전을 펼 생각이었던 것이다.<sup>13)</sup>

소련은 이미 1928년부터 시작된 계획경제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산업화에 성공해 있었으므로, 철수시에는 공장시설을 철저히 철거하여 독일군이 산업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광대한 지역을 초토화시켜 독일군의 진격속도를 감소시켰다.<sup>14)</sup> 자원이 제한되어 있던 독일군은 군수문제가 매

12) 『월간 조선』, 2000년 4월호 別冊부록 히틀러의 연설문.

13) Peter G. Tsouras, 『WARRIORS' WORDS A DICTIONARY OF MILITARY QUOTATIONS』, (CASSEL ARMS AND ARMOUR, 1994), 387쪽.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n case of a forced retreat of Red Army units, all rolling stock must be evacuated: to the enemy must be left not single engine, a single railway car, not a single pound of grain or gallon of fuel... In occupied regions conditions must be made unbearable for the enemy and all his annihilated at every step and all their measures frustrated.

Joseph V. Stalin, 3 July 1941, address to the Soviet people.

14) 정하명 외 5인, 앞의 책, 359쪽.

우 중요하였다. 그러나, 전선이 동쪽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군수품과 수리부속품의 현지조달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독일군은 병참문제의 곤란과 함께 전력발휘 면에서 점점 더 불리해져 갔다. 또한, 소련군은 뒤로 물러가면서 적에게 이용될 철도, 교량, 댐 등을 전부 파괴해 버렸다. 우물에도 독을 풀어 식수획득에 곤란을 겪게 하였다. 10월에 접어들어 독일군은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이미 그 무렵 추위가 시작되어 러시아의 영토는 서서히 얼어붙고 있었다. 독일군은 더욱 속도를 재촉하며, 더 춥기 전에 진공작전을 끝낼 셈이었지만, 소련군은 전력을 다하여 반격을 가하여 독일군을 격퇴하였다. 이후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의 패배로 독일군의 전력은 급속히 약화되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파멸로 이어지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도 초토화작전을 실시하였다. 1939년 이후로 히틀러는 ‘세계권력이나, 몰락이나’의 양자택일을 자주 들먹였다. 그는 전선에서 독일군이 전면적으로 패배하고 있을 때인 1944년 가을, 적군이 독일 영토에 접근하고 있을 때 제국 영토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명령하였다. 즉, 적에게는 문명의 폐허만을 남겨주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독일군은 철수지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市는 1940년 독일군의 폭격으로 도시의 중심부가 모두 불탔고, 1944년 또 다시 독일군의 ‘초토화작전’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것마저 모두 파괴되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로테르담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다.<sup>15)</sup>

모택동은 그의 저서에서 견벽청야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견벽청야(堅壁清野)란 조나라의 명장 이목(李牧)이 강한 주나라에 대해 사용하여 효과를 거둔 것으로, 우리가 항일유격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소위 ‘견벽청야’라고 하는 것은 ‘적을 저지하고 적을 요란하여 적군을 피로케 하고, 들을 말쑥하게 하고 성을 말쑥하게 하여 적군을 곤란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

15) <http://eostour.co.kr/eostour/europe/netherlands/roter.htm/>, 로테르담 관광소개 글에서 인용.

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6)</sup>

- 양식 : 이미 수확한 양식은 감추고, 곡식이 익었을 때는 인민을 동원하여 강제로 수확한다. 필요시 이삭을 잡아 뽑는 등으로 긴급수확의 방법도 병용한다. 수확한 곡물은 차가 다니는 큰길에서 3~50리 밖에 떨어져 있는 깊은 산속과 험악한 곳에 감추어 둔다.
- 기구 : 농사짓는 기구, 음식 만드는 기구, 의복, 이부자리 등 가정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은 가능한 한 들고 달아나야 한다.
- 자재 :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기계, 원료, 공업품, 상품 등은 모두 거두어 가지고 간다. 그리하여 적이 우리 동포를 도살하는 자료로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교통 : 적이 오는 길 위의 도로와 교량을 파괴하고 지뢰, 함정과 죽정을 설치하여 적이 전진하는 것을 저해하고 지방의 계엄을 강화한다. 필요시 적에 대한 교통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린다.
- 인원 : 인원을 잘 준비하였다가 유격소조로써 적에게 대항하도록 한다. 이밖에 반역자를 뿌리제 뽑아버리는 운동을 강화하여 일체의 적탐과 토비와 반역자와 탁비를 숙청하고 적의 '별동대'와 '선견대(先遣隊)'와 내통하는 분자들을 제거한다.

모택동의 견벽청야는 방어하는 측에 의하여 실시되는 초토화작전과 게릴라전이 결합된 작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대소련과의 전쟁에 참여하여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탈레반 정권은 반군과의 내전에서 특히 반대파의 삶의 근거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초

16) 조영운 편역, 『유격전의 원칙과 실제』(사계절, 1986), 285~289쪽(모택동이 저술한 「항일유격전쟁의 전략과 전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전제한 글). 이 책에서는 조나라와 주(周)나라간의 전쟁상황을 묘사하였으나, 중국역사 관련서적을 살펴보면 조(趙)나라와 진시황으로 유명한 진(秦)나라 사이에 발생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각주 4번 참고.

토화작전을 쓰고 있어 무려 300만명의 사람이 돌아갈 곳도 없이 유랑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7)</sup>

탈레반이 초토화시킨 한 마을에서는 2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을 집단처형 하기도 했다.<sup>18)</sup> 이는 현대에 발생한 국지적인 초토화 작전으로 볼 수 있다. 즉 저항세력에 대한 가옥과 농경지의 파괴, 가족에 대한 약탈과 아울러, 해당 마을 주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비판을 초래하였다.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민족의 주권을 가장 많이 인정받은 쿠르드족 집단이다. 1970년 정부와의 자치 협상에서 쿠르드어 교육과 교육어로서 쿠르드어가 허용되었으며 이라크 정부는 1974년 자치법을 공포하여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지역에서 쿠르드족이 자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쿠르드족은 자치지역내에 키르쿱(유전지대)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저항운동을 시작하였다. 실제로 정부의 조치들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유정책에 불과하였으며 자치법마저도 실제적인 쿠르드족의 자치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라크 정부는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쿠르드족의 민족 저항운동이 제압되지 않자 1975년부터 쿠르드족에 대한 강경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7년부터 1989년 사이에 자행된 쿠르디스탄 초토화작전과 안팔작전(Operations Anfal)이 가장 유명한데 이 작전을 통해 4,000개 이상의 쿠르드족 촌락이 초토화되었으며 수십만명이 학살되고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이 안팔작전 기간에 화학무기의 사용으로 할랍자 마을 전주민 5000명이 5분 안에 즉사한 사건은 세계에 잘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전체 8회에 걸쳐 진행된 안팔작전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1988년 1년간 진행된 안팔작전에서만 쿠르드족 민간인 10만명 이상이 죽었다.<sup>19)</sup>

17) 동아일보 2001년 9월 20일 신문기사.

18) MBC방송, 「지구촌리포트 45회」, 2001년 9월 30일 방송원고.

19) <http://mission.hosanna.net/kurdistan/>쿠르드족의 현황과 선교적 접근/기사중에서.

여기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초토화작전’ 또는 ‘초토화’란 용어는 적절치 않은 용어로 해당 마을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압작전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또한 방목지나 농경지를 불태운 것이 아니므로 초토화되었다는 용어 대신 ‘폐허로 변하였다’고 해야 적절한 의미이다.

콜롬비아는 코카인을 재배하여 이를 가공한 후 미국에 공급하는 마약기지로 악명 높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국내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들 마약기지를 제거해야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 2000년 11월 이후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콜롬비아 정부는 반군 장악지역에 있는 코카인 재배지역에 대하여 제초제를 살포하는 초토화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옥수수과 목초를 비롯한 모든 농작물이 말라죽는 사태가 발생하였다.<sup>20)</sup>

여기에서는 마약의 원료인 코카인 수확을 거부하기 위하여 제초제를 살포하였으므로 초토화작전이라는 표현보다는 고사작전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뉴욕무역센터에 대한 테러로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은 테러의 배후로 탈레반을 지목하고 이를 비호하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 전투과정에 대한 기사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미국 방부는 지상전을 주도하면서 공군력으로 하여금 탈레반의 주요 근거지인 카불, 칸다하르, 잘랄라바드, 마자리 사리프 등에 파상적인 공습작전을 감행, 탈레반 정권의 방공망과 통신시설, 군사기지 등을 초토화시킴으로써 지상군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sup>21)</sup>

여기에서 초토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탈레반의 방어력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그들의 군사시설을 완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방공망과 통신시설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파괴하고, 군사기지를 폭격함으로써 군대의

20) 중앙일보, 2001년 2월 21일 신문기사.

21) 조선일보, 2001년 12월 29일 신문기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전투의지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토화란 농경지와 목초지를 포함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론매체에서도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그야말로 파괴 정도가 매우 심대함을 표현하고자 초토화란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겠다.

#### 4. 한국전사에서의 초토화작전 사례

고구려는 연, 수, 당나라 등과 수많은 전쟁을 치루면서 대륙에서의 패권을 겨루었다. 초토화작전과 유사한 청야전술을 실시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후한(後漢)과의 전쟁(172년 11월)<sup>22)</sup>

고구려가 국가로서 성립되고 국력을 신장하는 가운데, 계속 한사군을 병합하려하자 한의 대군이 대규모 침공을 단행하였다. 고구려 신대왕은 국상 명림답부의 방어전략에 따라 한군의 예상진출로에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고 '청야전술'을 전개하면서 한군에 대항하였다.

청야전술(淸野戰術)이란 주요 성곽의 성투를 높이고 해자를 더욱 넓고 깊게 파는 작업을 진행하고, 각종 농작물이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기에 수확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sup>23)</sup>

연(燕)나라와의 전쟁(342년 10월)<sup>24)</sup>

연왕 모용황은 환도성을 점령한 이후 고국원왕이 항복을 거부하면서 시

22) 국방군사연구소, 『韓民族戰爭通史 I 古代編』(1994), 74~76쪽.

23)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845>,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74~75쪽에서 재인용.

24) 『資治通鑑』 卷97, 晉紀19 成帝 咸康 8<3051>, 국방군사연구소, 위의 책, 146쪽에서 재인용.

일을 끝자, 고국원왕의 부친인 미천왕의 능묘를 파서 시신을 수레에 싣고 생포한 왕모를 인질로 삼아 약탈한 보물과 주민 5만여 명을 포로로 하여 회군길에 올랐다. 그리고 후미부대가 출발하면서 성곽을 허물고 궁궐에 방화하여 초토화시켰다.

#### 수(隋)나라와의 전쟁(612년)<sup>25)</sup>

5세기초부터 170여 년간에 걸친 남북조시대(420~589)가 막을 내리고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문제가 1차 고구려 침공에 실패한 후, 대를 이은 양제(煬帝)가 고구려를 침공하였을 때, 을지문덕은 항복하는 뜻을 통고하여 수나라 군을 안심시킨 후에 수군진영을 염탐하였다. 을지문덕이 수군진영을 벗어나자, 수군은 을지문덕을 잡고자 우문술을 대장군으로 하여 30여만 명의 별동부대를 편성하여 추격하였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수군진영의 방문을 통하여 수군은 엄정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강행군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식량난까지 겹쳐 군사들의 사기가 극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군진영의 식량난을 가중시키기 위하여 일면 접전을 전개하면서 축차적으로 후퇴하는 양면전술로 수군별동부대를 고구려 영내 깊숙이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평소 무거운 식량을 유기한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군의 주도면밀한 청야작전(淸野作戰)으로 말미암아 이동중에 식량을 확보할 수 없었고, 기아와 피로로 수군의 전투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7월 하순 후퇴하는 도중인 살수에서 강을 건너는 도중 급격히 불어난 강물에 대부분이 목숨을 잃고 매복하고 있던 고구려군의 기습공격에 섬멸적인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 이 패배로 인하여 수양제는 철군을 하게 되었고, 고구려에게는 살수대첩이라는 빛나는 승리를 안겨주었다.

고려는 몽골국이 팽창하면서 1231년부터 1259년까지 30여 년에 걸친 몽골군에 의한 침략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는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었다. 이전에도 거란, 여진 등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은 적이 있지만 대몽전쟁은 그와 질적으로 달랐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전 국토가 전쟁

25)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207~216쪽.

터가 되었고 수도까지 옮겼으며,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등 전쟁의 참화에 시달렸다.

몽골군의 전략은 고려의 내륙 각지를 단기간에 유린하여 국토를 초토화로 만들어 물적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조기에 항복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몽골군은 항복을 거부하는 고려에 대하여 초토화작전을 실시하였다. 산악지대 깊숙히 피신한 백성들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였으며, 농토는 철저히 황폐화되어 백성들이 겪은 전쟁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sup>26)</sup>

이에 대하여 고려는 대몽 장기 항전전략인 이른바 청야작전(淸野作戰)에 따라 항전을 계속하였다. 즉 몽고군의 식량원을 없애기 위해 들판의 곡식을 완전히 소각시키고, 백성들에게 농지를 버리고 성안으로 도피하도록 하는 등으로 현지조달을 통한 몽골군의 군수물자 보급에 지장을 주어 몽골군의 조기 철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다.<sup>27)</sup>

이와 같이 공격적인 초토화작전과 방어적인 초토화작전으로 전란이 휩쓸고 간 고을마다 고려 백성들이 겪은 고통과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극심하였다.

조선에 대한 왜국의 침략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1592년 4월~1598년 12월)은 조선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대마도 해협을 건너 모든 군수물자를 수송해야만 하던 왜국의 입장에서 긴 병참선이 전쟁수행에 있어 크나큰 장애가 되었다. 자연히 현지에서의 물자획득에 병참지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되었다. 이들 왜군이 몽골군과 다른 것은 몽골군이 기마병이 주축인 것에 비하여 대부분 보병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와 몽골과의 전쟁시 몽골군이 초토화작전을 자행한 것에 비하여 왜군은 이러한 작전을 실시하지 않았다. 1593년 6월 진주성을 점령한 왜군이 점령과정에 입은 피해와 손실로 인하여 보복을 자행

26) 國防軍史研究所, 『韓民族戰爭通史Ⅱ 高麗時代篇』(1993), 193~260쪽.

27) 國防軍史研究所, 위의 책, 260~261쪽.

함에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성곽이 폐허로 변한 것을 초토화라고 표현한 것이 있을 뿐이다.<sup>28)</sup> 오히려 조선군이 왜군이 침공해 오는 길목에 있는 고을들에 대하여 ‘청야령(淸野令)’을 내려 피난길에 나서야 하였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것은 수양제의 침입에 대항하였던 고구려나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였던 고려에서 실시한 청야전법과 같은 방어전법으로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적군의 침입이 예상될 때, 침략예상지역의 백성들은 식량과 가재도구, 무기를 가지고 미리 준비된 산성으로 대피하고 나머지 모든 시설물과 농작물들을 불태움으로써 적들이 현지의 시설물과 식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전법이었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로 이러한 청야전법을 시행한다면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됨은 너무도 명백한 일이다. 조선이 이러한 청야전법을 실시한 예를 살펴보면, 1596년 11월 명나라와 왜와의 강화 교섭이 결렬된 이후, 명의 책봉사와 동행하였던 통신사 황신(黃愼)은 나고야에서 왜군의 재침입이 확실시된다고 긴급보고를 하였다. 조정에서는 한강 이남지역의 백성과 물자를 주요 산성에 옮겨 왜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야전술을 통한 장기작전을 준비하였고, 전국 각도의 수령(守令)들에게 긴급 명령을 하달하여 실행을 독려했다.<sup>29)</sup>

이 같은 청야전술은 방어하는 측에 의한 초토화작전을 실시한 것이라 하겠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의 구국활동이 보다 규모가 큰 의병 전쟁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싸우던 의병들이 연합하여 힘을 모았다. 13도 창의군이라 이름짓고 1908년 1월에 서울 진공작전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한 뒤 13도 창의군은 해산되었다. 의병과의 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본은 본국의

28) 國防軍史研究所, 『韓民族戰爭通史Ⅲ 朝鮮時代 前篇』, 1996, 218쪽.

29) 國防軍史研究所, 위의 책, 231~236쪽.

『난중잡록(亂中雜錄)』 3, 趙慶南, 대동패림(大東裨林), 丙申 11月條 李元翼의 傳書내용.

韓國海洋戰略研究所, 장학근 지음, 『충무공 이순신의 짧은 생애, 빛나는 삶』(2002), 120~121쪽에는 전라남도 구례에서 청야령에 의한 백성들의 고통을 잘 묘사하고 있다.

군인까지 끌어들이 의병을 공격하였다. 일본군의 무자비한 양민학살과 초토화작전, 무기의 열세로 인하여 의병활동은 약화되었다고 역사책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일본군의 초토화작전이란 주로 인원에 대한 토벌작전을 말하는 것으로, 곡식의 약탈, 농경지에 대한 방화, 마을에 대한 방화 및 파괴에 대한 기록자료는 나타나지 않아 초토화작전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하겠다.

항일의병들이 활동근거지를 만주·러시아령으로 옮긴 1915년 이후 항일 독립군을 결성하여, 1920년대에 본격적인 항일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본군은 1920년 6월 7일 봉오동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뒤, 7월부터 독립군 전체를 토벌하고자 대규모적이고 주도면밀한 ‘초토계획’인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間島地方 不逞鮮人 礎討計劃)’을 수립하고 ‘초토작전(礎討作戰)’을 실시하였다.<sup>30)</sup> 이 계획은 김좌진 장군이 지휘한 독립군에 의한 청산리 대첩에 의하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여기에서 초토작전(礎討作戰)이란 글자 그대로 독립군의 근거지가 되는 간도지방을 토벌하겠다는 뜻으로, 주로 인원에 대한 토벌작전을 말하며, 오늘날 ‘대유격작전’과 유사한 뜻이라고 하겠다.

한국전쟁시 미군이 북한지역에 대하여 ‘초토화작전’을 하였다고 북한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보면, <미제국 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조선의 평화적 도시와 농촌, 평화적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폭격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무고한 주민들이 살해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미제의 초토화작전의 진상이었다. 미제의 초토화작전은 조선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유형물을 철저히 소멸할 것을 목적으로 한 20세기 식인종들의 전범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모든 선전물이나 책자에 기록하고 있다.<sup>31)</sup>

30) 이상준, 「광복군전사」(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3), 138쪽.

당시 유엔군의 작전이란 군사 및 경제시설, 은거중인 군대의 집결지와 이동중인 부대, 도로 및 교량에 대한 폭격과 사격 등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통상적인 전쟁의 모습이다. 이 와중에서 강제로 동원된 무고한 민간인이 살상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전쟁의 비극이며 전쟁의 특성이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새 천년 첫번째 호국인물로 영화 '빨간 마후라'의 주인공 유치곤 준장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국방일보에 그 업적을 게재하였다. 기사 중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351고지 초토화 작전은 지상군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공군으로서도 무척 망설이고 주저하였던 작전이었다. 이때 북괴군은 아군의 전초진지의 하나인 351고지와 대치하고 있던 B고지에서 지하로 터널을 구축하면서 아군 진지로 공격해 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군이 두 디지처럼 기어오는 인민군을 항공폭격으로 때려 달라는 것이었다. (중략)

조종사들은 지상의 목표물이 상상외로 작아 식별이 어렵고, 또 우군 진지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 빗발치는 대공포화를 뚫고 급강하를 세번씩이나 하여 목표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폭격을 개시하여 적 진지를 초토화시켰다.<sup>32)</sup>

여기서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적 공격부대를 완전히 제압하여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무력화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는 극적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자 문학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31) 사회과학출판사, 『조선통사(하)』(평양, 1987), 476쪽.

32) 국방일보, 2000년 1월 8일(토) 신문기사.

## 5. 제주4·3사건과 군의 작전

- 제주4·3사건을 설명함에 있어서 ‘초토화’란 용어가 적합한가?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하여 제주에서 좌익세력에 의한 무장폭동이 일어났다. 이때 제주도내 총 15개소의 경찰지서 중에서 14개소가 불에 타거나 파괴되고 경찰관 13명이 살상 당하였으며, 민가도 4채나 불에 탔다. 최초의 방화사건인 것이다. 무장폭도들에 대하여 토벌하는 과정에서 좌익세력이 침투한 제9연대가 토벌작전을 태만히 하자 경찰만에 의한 단독작전으로 피해가 증가하였다.

이에 경찰을 포함한 토벌대는 선무공작으로 공비와 주민을 분리하고 공비들의 거점을 소탕하기 위하여, 공비들의 보급물자 제공소로 이용되고 작전에 방해가 되는 산간에 산재해 있는 민가를 소각시키고, 주민들을 하산하게 하여 평지에 준비한 임시 주택에 이주시키는 작전을 계획하였다. 즉 물고기와 물을 분리하는 정책을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토벌과정에서 일부 양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일부 공비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민가를 소각한 일이 있었으나, 그 외에 농작물이나 농경지에 대하여서는 소각하거나 훼손한 기록은 없다. 그야말로 공비와 좌익세력이 은폐가능한 지역에 있는 민가에 대해서만 사전 경고를 하고 소각을 실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은거하던 공비들이 식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곡뿐만 아니라, 방목하던 소와 말들을 약탈하여 도살함으로써, 당시 가축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던 농가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33)</sup>

33) 제주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실은 다음 자료를 참고할 것.

정석균, 『濟州4·3事件의 真相』, 『軍史 第41號』(군사편찬연구소, 2000. 12), 1~49쪽.

정석균, 『新資料에 의한 4·3事件의 실제』, 『軍史 第45號』(군사편찬연구소, 2002. 4), 1~44쪽.

일부에서는 미군정보고서의 내용 중에 제주도에 대하여 초토화작전을 지시하는 미군정청의 지시내용이나 보고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들 보고서 중에 ‘초토화작전(焦土化作戰)’, 즉 ‘Scorched Earth Strategy’라는 용어를 사용되어 있는지, 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 제24군단 작전참모 타이첸 대령은 스키위(M. W. Schewe) 중령에게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는 제59 군정중대장 존 맨스필드 중령과 회동하여, 제주도의 현 상황을 평가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는 1948년 4월 27일 제주도로 이동하여 당시의 제주도 사건을 평가한 보고서를 4월 29일자로 작성하였다. 보고서 중에서 작전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초토화’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한 곳이 없다. 단지 ‘소탕한다’라는 뜻의 ‘sweep’라는 단어만을 사용하였다. 보고서 내용 중에 작전실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교할 수 있도록 한글 번역문과 영어 원문을 같이 실었다.<sup>34)</sup>

3. - 가.

모든 작전은 제5 경비연대장 김[익열]중령의 지휘하에 이루어졌음. 1지역의 마을에 대한 소탕작전 결과는 완전히 실패하였음.

3. - a.

The entire operation was under the personal direction of Colonel Kim, Commanding Officer of the 5th Korean Constabulary Regiment. The result of the sweep of the villages(#1) were entirely negative.

다. 4월 28일 제2차 작전

제주도의 제5경비부대는 10:00시에 트럭과 도보행군으로 야영지에서 이동하였으며, 지시된 마을들을 소탕하기 시작하였음.

34) RG338, U. S. Army Forces in Korea, 1945-1949,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 Do Island", 29 April 1948.



## c. Operation #2. April 28.

The 5th Korean Constabulary unit at Cheju moved their bivouac site at 1000 by trucks and foot and started to sweep the villages indicated.

## 4. 향후의 작전(Future Operation)

가. 4월 29일의 제3차 작전계획은 - 맨스필드 중령이 4월 28일 12:00시에 설명하였는 바 - 제5경비연대와 제9경비연대가 4월 29일 제주읍과 모슬포에서 작전을 개시하여 노루악 방향으로 소탕해 나갈 것이며, 그 이유는 무장대가 그쪽 오름(hill)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a. Operation #3 - Colonel Mansfield stated at 1200, 28 April, that the plans for 29 April were to start the 5th Korean Constabulary Regiment and the 9th Korean Constabulary Regiment from Cheju and Mosulpo 29 April and sweep toward NORO-AK Hill, as it is believed that the armed bands are in the hills.

나. 4월 30일의 제4차 작전은 제5연대가 제4지역의 마을들을 소탕하는 것이다.

b. Operation #4 - 30 April. The 5th Korean Constabulary Regiment is to sweep the villages in Area 4.

다. 제5차 작전은 제5연대와 제9연대는 교래리 방면의 오름들을 소탕하는 것이다(잠정 작전 개시일은 5월 1일임).

c. Operation #5 - The 5th and 9th Korean Constabulary Regiments are to sweep the hills towards KYORAE-RI(Tentative date, May 1).

브라운대령은 1948년 5월 22일부터 1948년 6월 30일까지 제주도에에서의 활동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한국주둔 미육군 군정사령관 앞으로 제출하였다.<sup>35)</sup>

35) Rothwell H. Brown, 1948. 7. 2.

이 자료는 미 펜실바니아주 카알라일(Carlisle)시에 위치한 미육군군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이 보고서 중에서도 작전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초토화’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한 곳이 없다. 단지 ‘진압한다’라는 뜻의 ‘break up’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였다. 보고서 내용 중에 작전실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선거실시에 반대한 소요가 성공한 요인,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거대한 폭동으로 성장하게 된 요인은 다음과 같음.

4. There were several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success of the election riots and which led to negation of the el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major revolt on the Island. There were:

가. 제59군정중대 민사업무 선임장교가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는 역할에서 실패한 것:

a. Failure on the part of the Chief Civil Affairs Officers of the 59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 to take prompt and determined action:

- (1) 초기의 폭동단계에서 민사업무장교에게 가용한 병력으로 즉시 진압시키는 것.
- (1) To break up initial riots with forces immediately available to him.
- (2) 제주도 경찰을 통제하는 것.
- (2) To control the Island police.
- (3) 경찰 예비병력이 제주도에 도착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임무를 부여하는 것.
- (3) To effectively employ police reserves as they arrived on the Island.
- (4) 한국 국방경비대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적극적인 명령들을 하달하고 하달한 명령들을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

---

있음(U.S. Military History Institute, <The Rothwell H. Brown Paper>, Box 3).

스키워중령과 브라운대령의 문서는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획득하여 현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내 자료실에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음.

(4) To issue positive orders to Korean Constabulary units as they arrived on the Island and to take positive steps to assure the execution of such orders.

나. 제주도에 파견된 경찰예비병력에 의하여 자행된 지나친 만행과 공포감 조성(이것은 위 (2)항과 (3)항에서 언급한 직접적인 결과였음).

b. Excessive brutality and terrorism practiced by police reserves sent to Island(this was a direct result of comments made in (2) and (3) above).

5.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1948년 5월 22일 채택한 절차:

5. Procedure adopted on 22 May 1948, to break up the revolt:

가. 경찰은 모든 해안마을을 보호하고, 무기를 소지한 폭도를 체포하며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한정된 임무를 부여받았음.

a. Police were assigned the definite mission to protect all costal villages, to arrest rioters carrying arms, and to stop the killing and terrorizing of innocent citizens.

나. 경비대는 제주도에내에 굳게 조직된 인민해방군의 모든 구성분자들을 진압하기 위한 한정된 임무를 부여받았음.

b. The Constabulary was assigned the definite mission of breaking up all elements of the People's Democratic Army formed within the interior of the Island.

해방후 군정을 담당하였던 당시 브라운대령과 스키위중령의 보고서를 살펴 보았지만 ‘초토화(scorched earch)’로 표현된 문구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이와 비슷하게라도 실시된 작전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공식 문서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초토화작전도 실행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인사들의 유고나 말을 인용하여 제주사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은 문예작품 속의 문학적인 표현을 위한 것이거나 사실과는 동떨어진 다른 목적을 가진 선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6. 맺 음 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4·3사건에 있어서 정부군의 토벌작전에 대하여 사용한 초토화작전이란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제주도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농경지와 가옥을 함께 소각한 경우는 없으며, 공비들이 은거하여 정부군을 습격할 수 있는 좌익세력의 편을 드는 독립가옥이나 소규모의 민가들을 부득이하게 소각한 경우일 뿐인 것이다. 반정부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민에 대한 학살, 민가를 소각한 것만으로 초토화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오도하는 기만행위이다. 문학작품을 쓰는 작가라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속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언론기관을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제주도와 관련한 시사적인 문장을 작성할 때에는 문학작품 속에서나 어울릴 ‘초토화’란 용어보다는 ‘은거거부를 위한 가옥소각’이나, ‘은거가능 가옥의 소각’이라고 표현하든지, 또는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가옥 방화’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문학이 아닌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학자이자 전문가의 양심이라 하겠다. 제주도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는 애도를 보낸다. 하지만 비인도적인 살상행위를 반군이 대부분 자행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어느 국가가 국가 자체를 부정하고 양민을 살해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데 이를 방치할 것인가? 범죄행위를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태만행위일 뿐이다.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지만 국가에서 부여한 임무에 대하여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들을 용인하는 국가기관이라면 그 자신을 부정하는 것 외에 더 무엇이 있을 것인가?